DuPont, 테플론 불안 “확대말라!”

중국 언론이 보도자료 오역해 불신확대 ... 인체무해 입증자료 준비

미국 DuPont이 중국 언론매체들을 겨냥해 프라이팬에 음식물 부착을 차단하는 코팅제로 쓰이는 내열성 합성수지인 테플론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적 불안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DuPont은 중국 언론매체들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7월 초 배포한 보도자료를 오역했다고 주장했다.

EPA는 보도자료를 통해 DuPont이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으로 테플론을 만드는 핵심재료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에 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PA는 시험결과를 통해 PFOA가 건강과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PA의 주장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중국 백화점들은 테플론으로 코팅된 주방용기들을 판매대에서 치우기 시작했고, 검역당국도 테플론 코팅 주방기구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DuPont China Holdings 사장인 찰스 브라운은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PA 보도자료에 대한 오역은 음식물 부착이 안되도록 코팅처리된 조리기구에 대한 불안을 몰고 왔으며, PFOA는 인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사장은 EPA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매체의 오역과 오해가 중국인 소비자들과 중국 정부에 불필요한 관심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DuPont은 EPA 보고서에 담긴 주장에 대해 30일 내에 공식적인 반박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23>